

'메이플스타 오디션' 본격 막 올라

본선은 10월 21일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올 가을을 뜨겁게 달궈 줄 메이플스타 오디션의 막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아이에이치큐 케이스타(IHQ KSTAR) 공개홀에서 '제2회 메이플스타 오디션'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발표회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KBS 김광필 국장, 뮤직 전문채널인 KSTAR 김주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가수 KCM과 '골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심사위원장에 KBS 김광필 국장을 비롯 심사위원으로 '모두'의 오디션 하승환 대표, IHQ컴퍼니 최영단 대표, 이성준 프로듀서 등 4명을 위촉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메이플스타 오디션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회 정읍사문화제 일환으로, 21일 오후 6시부터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달부터 참가자를 모집 중으로, 마감은 9월 9일이다. 참가 대상은 전 세계에 있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 기간 내 메이플 스타 홈페이지(<http://maplesta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예선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광주와 부산은 9월 1일, 대전과 대구는 9월 8일, 그리고 서울·인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아이에이치큐 케이스타(IHQ KSTAR) 공개홀에서 '제2회 메이플스타 오디션' 제작 발표회를 열고 가수 'KCM'과 '골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천·경기권은 9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1차 300팀을 선발한 후 연지아트홀에서 2차 예선을 가진 뒤 15~20여 팀을 선발,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중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메이플스타(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주관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과 각종 축제 및 축하공연 출연 기회가 제공된다. 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

원과 100만원을, 장려상과 인기상 각 3명에게는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권을 수여한다.

유 시장은 "예능의 본고장이자 관광도시인 정읍에서 열리는 이번 오디션이 끼와 재능이 있음에도 톱 불구하고 그동안 방법을 찾지 못해 꿈을 접어 두었던 지역 청소년들에게 스타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치즈마을, 작은 음악회·치맥페스티벌 열어

임실군이 2018 아쿠아페스티벌에 이어 한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이색적인 축제를 또다시 개최한다.

군은 10일부터 11일까지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작은 음악회와 치맥페스티벌'을 연다. 작년까지 1일만 개최했던 행사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이틀간 진행된다.

최근 열린 아쿠아페스티벌이 아이들의 여름 나기를 위한 임실군의 특별한 선물이었다면, 임실치즈마을에서는 온가족이 한데 모여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는 오감만족 축제가 될 전망이다.

행사의 주무대인 임실치즈마을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불릴만큼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임실군의 대표적인 농촌마을로 유명하다.

이번 축제에는 각종 치즈체험프로그램, 치즈 요리대회, 맥주·요거트 마시기 대회, 어린이 영화관 등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임실군 농악단의 농악공연과 함께 가을사랑으로 잘 알려진 가수 신계행을 비롯, 박경아와 소리새 등 가수공연 및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개그콘서트 비둘기 미술단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무더위를 식혀줄 치맥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소정의 참가비를 내면 기념품 깃을 이용하여 어린이는 음료 무한리필, 어른은 맥주 무한리필을 제공하고 치즈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치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임실터미널에서 치즈마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이번 임실치즈마을축제는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이병오 축제 위원장을 주민회의를 통해 선임했다.

송기봉 치즈마을운영위원장은 "주민모두가 하나되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치즈마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임실치즈마을은 임실엔치즈·낙농특구의 중심지역으로서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과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주도한 핵심거점 마을"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치즈마을을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산업이 앞으로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치즈마을은 전국 최초로 임실치즈를 활용한 치즈체험을 시작하여 대한민국 농촌형 6차산업화에 큰 획을 그었으며, 치즈농리기체험은 전국 각지에서 도입되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수군과 초록누리협동조합이 청소년 장수가가야역사캠프를 1박2일 일정으로 열었다.

장수가가야 팬이 될래요~

서포터즈 육성 위한 장수가가야역사문화캠프

장수군(군수 장영수)과 초록누리협동조합(장수군 1호 교육문화협동조합)은 장수가가야 역사문화 교육을 통해 전국적 팬을 육성하기 위한 장수가가야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청소년 장수가가야 역사캠프를 1박2일(2018.8.8.~8.9.) 일정으로 열었다.

이날 열린 '장수로 가는 가야역사문화 청소년 캠프'에는 SNS 홍보만을 통해 시흥, 수원, 전주, 군산, 장수 등 전국에서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으며, 장수 가야 제철 유적의 상징인 대적골 제철 유적지 탐방, 장수가가야 강좌, 가야시대 처럼 차마시기, 가야토기 만들기, 장수 대장간 체험, 전북가야 특별전 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장수가가야 서포터즈는 올해로 3년째 활동 중인 장수가가야지킴이의 확장판으로 우리지역의 가야문화유산을 비롯한 문

화재에 대한 역사교육, 유적지탐방, 발굴 체험, 영남지방 가야문화권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역사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보호 및 활용,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김윤희(15세)은 "가야시대부터 차를 마셨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대곡관공지 한옥 뒷마루에서 별빛, 달빛과 함께 차를 마시니 운치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장수가가야의 매력에 흠뻑 빠져 올 여름방학은 매우 뜻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수가가야 서포터즈 주관부서장인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올라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가가야 역사문화캠프가 한차례 더 진행되므로 많은 참여를 당부했으며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장수가가야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환희 기자

시민주도형 행사 '군산 야행' 막바지 점검

군산야행 최종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시현장간부회의가 지난 9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여명은 오는 11~12일 양일간 개최되는 '2018 군산야행' 개막식장과 테마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월명동 일원을 둘러보고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막바지 점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군산야행의 총 70여개 프로그램 중 32개 프로그램에 지역예술단체, 동호회, 학생,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시민 참여형 행사로 추진된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부터 동국사에 이르는 2km의 구간에 LED조명등을 이용한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근대문화유산을 재현한 11개의 부스를 설치해 볼거리를 강화하는 한편,

총 8개 테마별로 전시·공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여름 밤 군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경기 침체와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과 휴가철을 맞아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번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강 시장은 "군산 야행이 문화제 야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주도형 문화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